

신체움직임의 창의성 이론과 요인분석

Creativity Theory of Body Movement and Analysis of Creativity Factor

안병순

순천향대학교 연극무용학과

Byoung-Soon Ahn(ahnbs@sch.ac.kr)

요약

창의성은 문제인식과 해결방법으로 상상력을 통한 새로운 이미지의 사고능력과 표현이다. 이 연구는 신체움직임의 창의성이론을 탐구하고 창의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신체움직임의 창의성은 첫째, 움직임 자각 둘째, 신체움직임 디자인 셋째, 움직임의 발견, 넷째, 움직임활용이라는 단계가 필요하다. 자기자각과 자아개념을 통한 새로운 이미지의 활용은 문제인식과 해결기능에 대한 창의적인 향상을 가져온다. 결론적으로 신체움직임의 창의성은 상호작용에 의한 '제3의 힘'과 '흐름의 유연성'으로 신체움직임의 무한성을 의미한다.

■ 중심어 : | 신체움직임 | 창의성이론 | 창의적 사고 | 내적움직임 | 움직임 디자인 |

Abstract

Creativity is the thinking ability and the expression of new image by imagination as a problem recognition and way of solution. This study aims to search for the creativity theory of body movement and to analyze the creativity factor. According to the study, the creativity of body movement needs four steps: movement awareness, movement design, movement discovery and movement use. The use of new image through self-perception and self concept brings about a creative improvement in the problem recognition and its resolution function. In conclusion, the creativity of body movement means the infinity of body movement as 'the third energy' and 'the flexibility of flow' by interaction.

■ keyword : | Body Movement | Creativity Theory | Creative Thinking | Inner Movement | Movement Design |

1. 서론

예술영역의 표현활동과 창의성의 실현은 예술가의 독창적인 논리와 새로운 발견을 의미하며, 예술작품이라는 창조적인 가치와 그 실천에서 비롯된다. 예술적 표현과 형식의 추구는 항상 새로움을 찾기 위한 실험적 선택의 연속으로 해체와 융합을 통한 생명력을 창조한

다. 특히 무용예술은 창의성실현의 근본목표와 신체움직임이라는 표현매체의 창조적 실험을 통한 무한영역의 실천을 근거로 상상력과 신체이미지를 극대화하는 목적을 갖는다[1]. 즉, 신체움직임을 통한 창조적인 가치라 함은 항상 새로운 발견을 통한 독창성과 새로운 원리를 개발하여 창의적인 움직임의 개별화 즉, 움직임의 개별적인 창의성 실천을 의미한다.

*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접수일자 : 2013년 08월 21일

수정일자 : 2013년 11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3년 11월 25일

교신저자 : 안병순, e-mail : ahnbs@sch.ac.kr

창의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논리적인 체계와 무용교육은 학생들의 전문교육을 통해 자기인식과정의 감각 경험과 움직임의 자아실현능력을 고취시키는 창의적인 교육방법의 능동적인 실천이 존재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다[2].

무용교육에서 창의성이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움직임의 예술과 그 움직임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무용수 자신의 내적언어는 내적움직임과 정신작용에 의한 인지적 움직임선택의 과정을 통해 순간적으로 자신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신체움직임의 자기인식과정이란 '상상력을 통한 이미지 활용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독창적인 창의성과 자율적인 사고(self-thinking)를 의미하며, 무용예술의 창의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창의성은 "특정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독특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고과정(thinking-process)"으로 정의한다. 창의성이론 연구의 대표학자인 Guilford의 창의성이론에서 사고의 과정을 두 가지의 개념으로 구분했는데 첫째, 확산적사고(divergent thinking)와 둘째, 수렴적사고(convergent thinking)이다. 이에 대한 사전적 의미의 설명으로 이 두 종류의 사고과정은 문제인식보다는 문제해결과정에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가능한 해결책들을 기억해내거나 새 해결책들을 고안해내는 확산적 사고 즉, 개인의 사고가 여러 갈래로 퍼지는 단계를 말한다. 두 번째,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능성들을 좁히고 적합한 해결책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식과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수렴적사고이다.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사람들은 두 유형의 사고를 번갈아가면서 진행한다[3].

무용영역에서 창의성 관련 선행연구는 1980년 이후부터 움직임 요소, 신체표현 및 창작학습, 무용교육을 통한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및 개발·신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4-8]. 주목할 점은 '무용창의성의 요인분석(오레지나, 2006)'으로 무용창의성의 본질에 관한 6가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안무가와 무용수의 창의성 구성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무용창의성은 새로운 무용이미지를 만들고 가치를 부여

하는 능력과 태도로 정의하고, 6개의 구성요인(움직임 감각·심미적 감각·무용사고력·작품구성력·무용태도·예술체험)으로 구분하였다[9]. 박중길(2002)의 연구에서 제시된 무용교육의 일반적인 특성을 지적활동, 소통과 표현, 적극적인 참여, 비판적사고양식의 네 가지 요소로 무용의 창의성을 응용하여 제시하였다. 무용수들은 무용교육의 일반적인 네 가지 특성을 연계하고 응용하여 신체움직임의 창의성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움직임을 구조화하여 미적 수단으로서 신체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둘째, 신체움직임이 표현과 의사소통의 보편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적극적인 이해력 셋째, 신체적 특성과 긍정적인 자기이미지에 대한 자신감 넷째, 신체움직임이 갖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 역사와 형성의 생생한 표현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이해능력 다섯째,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인식하고 연습하여 다듬고 자신감으로 표현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 여섯째, 신체움직임이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미치는 기여도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을 발달시키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5]. 강혜련(2000)은 '창의적 사고와 신체지각과의 관계'의 연구에서 신체움직임의 창의성을 탐색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작력에 역점을 둔 움직임 학습으로 규정하고, 움직임의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신체(body)는 신체인지(body awareness), 언제(when)는 시간인지(time awareness), 어디서(when)는 공간인지(space awareness), 어떻게(how)는 시간(time), 무게(weight), 흐름요소(flow)의 결합, 무엇(what)과 혹은 누구(who)와의 관계(relationship)로 5가지 요인들을 크게 구분하여 이를 신체지각(body awareness)과 움직임의 지각(movement awareness)으로 분류하였다[10]. 또한 신체움직임의 창의성과 관련하여 안병순(2008)은 즉흥무용교육의 창의성이론에 관한 연구에서 즉흥무용의 창의성은 무용교육과 창작에서 무용수의 지적, 미적,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크게 기여함을 밝히며, 이를 신체, 인지, 정의, 사회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지적활동과 소통과 표현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와 비판적인 사고의 특성으로 그 요인들을 구분하였다[11]. 이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인 즉흥무용교육의 창의성이론을 참고하였으며, 이는 자율적 인지과 문제발견을 포함한 창의적 사고와 통합과정에서 비롯됨을 밝힌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신체움직임의 창의성 구성요인 역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인식과정의 체험과 움직임의 자아실현능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신체움직임의 창의성은 무용교육의 창의적 성과의 핵심으로 작용된다. 실제로 신체움직임의 창의적 특성은 창작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신체움직임의 창의적 요소들은 그 특성과 연구범위에서 또 다른 개념의 패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무용수의 동기인식과 자기화과정(self-discovery process)으로 상상력을 통한 무용수의 자기탐구과정 프로그램 활용과 교육방법들에도 많은 변화와 발전들이 있어왔다. 지금까지 신체움직임의 체험적 요소인 현상학적 접근이라는 본질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정신적 작용의 연구들부터 교육과 창작 그리고 공연형태의 흐름과 무용창작관련 프로그램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창의성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다루어 온 바, 창의성이론과의 논리적인 탐색과 합리적인 가치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들은 일부분의 접근에 불과하다. 특히 무용교육에서 신체움직임의 창의성이론을 교육적 특성의 이론적 틀로 형성함은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무용교육에서 신체움직임의 창의성에 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신체와 정신적 작용에 의한 무용창의성의 요인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목표

1. 연구방법과 분석관점

연구방법은 창의성을 핵심으로 관련 참고문헌 고찰을 통해 신체움직임의 창의성을 규명하고, 관계분석과 함께 요인별 특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무용에서 신체움직임의 창조적인 상상력과 표현활동의 본질은 작품의 특수한 관계성을 떠나 풍부한 예술적·미적사고와 경험

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며, 자유로운 이미지와 신체움직임의 독창적인 표현에 따라 그 가치는 형성되는 것이다 [12]. 다시 말해 예술의 자율성은 독창적인 미적 경험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며 따라서 창조적 경험이란 예술의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본능적인 움직임과 목적에 의한 움직임표현으로 구분되며, 신체움직임 원리의 이해와 목적에 따른 움직임교육이 전제되어야 가치형성을 담보할 수 있다[13]. 따라서 전문적인 무용수들에게는 창의력 향상을 위한 자유로운 자기표현의 경험과 기회가 주어질까만 풍부한 사고와 감성적인 표현을 기대할 수 있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스스로 탐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이론적 특성을 규명하고, 신체움직임의 자율적 사고와 풍부한 감성표현의 요인과 관계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자는 앞서 제기한 켈포드의 창의성 즉,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신체움직임의 표현요인을 중심으로 창의성을 구분하여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신체움직임의 창의성 이론에 관한 분석적인 요인들은 내적감성과 외적표현으로 구분되는데, 구체적인 분석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움직임의 창의성과 관련된 미적개념인 인지심리학학습이론의 관점에 기인한다.

둘째, 창의적 움직임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무용수의 내적언어의 개념으로 내적움직임의 요소들을 분석한다. 이는 무용수의 정신작용에 의한 인지적 움직임선택에 관한 창의성의 요인으로 자기 자신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내적감성과 외적표현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움직임의 창의성은 움직임교육 원리에 근거한 신체의 지각훈련(perception exercise)이고, 무용교육의 창의적 목표 즉, 움직임의 지각과 창의적 움직임의 관계설정이라는 등식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1].

2. 연구목표

이 연구에서는 신체움직임의 창의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그 요인들을 분석하고 요인별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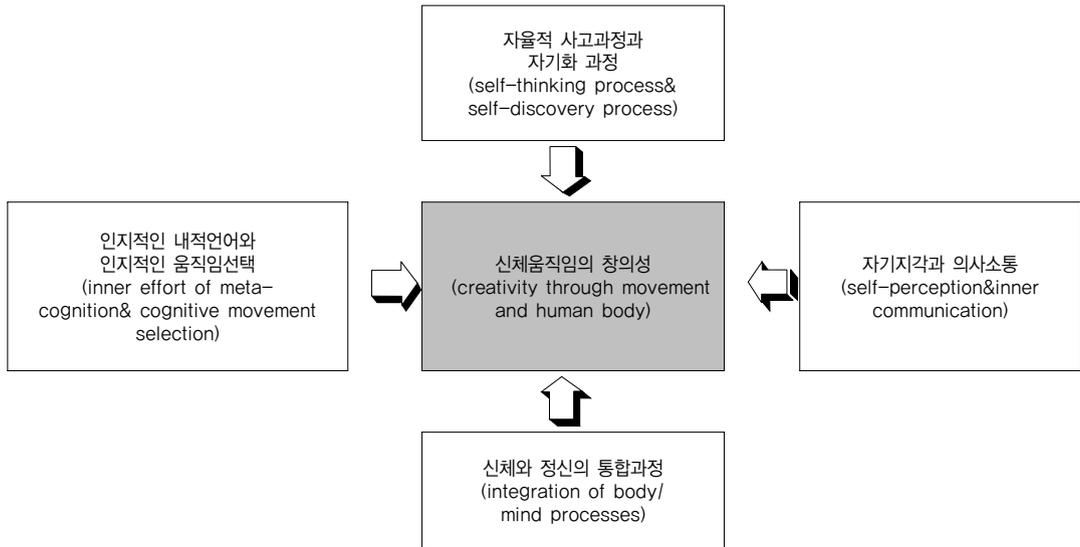


그림 1. 창의적 움직임요인의 관계설정

첫째, 인지심리 학습이론에 근거한 신체움직임의 창의성이론을 토대로 창의적 움직임의 확산적 사고와 의사소통의 요소들을 분석한다.

둘째, 신체움직임의 창의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요인들을 구분하여 이를 분석한다.

셋째, 움직임 지각과 창의성 요인의 관계분석을 통해 무용교육의 창의성에 대한 개념적인 목표의 이론적 범위를 설정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연구목표를 통해 신체움직임의 창의성이론을 재조명하여 창의성에 대한 이론적 범위의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방법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결과

1. 창의성 이론

창의성이란 상상력이 풍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사고능력을 말하며, 무용에서의 창의성이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문화적 또는 예술적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일컬어 창의성은 무용의 생산조건이자 감상과 이해의 도구로서 창의성의 구성요소는 예술적

인 상상이다[14]. 창의성은 확산적 사고로서 새롭고 신기한 것을 낳는 힘(Guilford), 곤란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내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며, 또한 그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Torrance), 그리고 생산적 사고와 창조적 사고를 표현하는 복잡한 심리적 과정(Taylor), 외적 준거에 비추어 새롭고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Gruber), 독창적이며 그 상황에 적절한 아이디어(Martindale), 사람들에게 매우 의미 있고 새로움에 대한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Lumsden), 무언가 새롭고 적절한 작품을 만들어 내는 능력(Lubart),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산출해 낼 수 있는 능력(Boden)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보다 최근에는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5].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창의성을 한가지의 학문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창의성을 이해하려는 이론이다. 특히 Lubart(1995)는 인지(cognition)성격(personality)동기(motivation)환경(environment)등의 적절성 여부에 따라 창의성이 결정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개개인의 창의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이들 중 어떤 요인이 충분할 경우에 다른 것

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요인이라도 최소한의 수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체움직임의 창의성은 자기인식과 자아실현의 과정에서 잠재력을 지닌 감각경험과 움직임의 자아실현능력을 고취시키고 계발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6].

최근 들어 무용창작교육의 형태는 신체움직임 이전에 모티브와 이미지훈련에 따른 창의성 즉, 문제인식과 문제해결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인지심리학분야에서 켈포드(Guilford)와 토런스(Torrance)의 개념은 의도적인 훈련실제를 강조하는 정신능력에 따른 접근방법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인지과정중심 교육은 탐구결과로서의 지식 그 자체를 가르치기보다는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등 사고의 방식이나 학습하는 방법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유형이다[17].

실제로 인지과정의 자기지각(self-perception)이나 자아개념(self-concept)은 새로운 문제해결기능과 방법에 대한 창의적인 향상을 가져온다. 인지과정이란 생각하기, 계획 세우기, 분류하기, 관계 짓기, 창작하기, 문제 해결하기 등과 같은 인간의 지적 작용을 지칭하는데 학습과정에서 사용되는 지적, 정의적 요소를 작동시켜 변환시키는 일련의 모든 정신적 기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학습내용은 내용지식과 과정지식으로 구분되는데, 곧 자기지각의 체험을 통한 신체움직임의 교육방법은 무용수들의 동시적인 무용경험으로부터 시작하는 성장의 기술적 인식과 표현에서부터 예술형식으로 이해된다. 즉, 무용수들은 표현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움직임에 대한 인식을 발달시킬 수 있고 움직임의 어휘요소, 그리고 원리에 대한 이해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혜선(2007)은 신체움직임의 창의성 조건으로 첫째, 자기발견을 통한 자신감 찾기 즉, 심상훈련을 통한 움직임의 상호작용과 둘째, 사고의 유연성을 통한 개인의 특성을 찾고 표현의 창작성을 강조하는 아이디어의 개발을 강조하였다. 또한 움직임교육의 창의성과 관련된 개념을 범주화하여 이를 실험하고 귀납적 분석을 통해 신체움직임의 창의성에 대한 5가지 결

과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창작적인 융화와 조절의 인과적 조건 둘째, 창의적 트렌드 개념에서의 상황적 맥락(context) 셋째, 시간과 공간적인 요소와의 상호소통의 중재적 요소 넷째, 사고의 유연성과 심상훈련의 상호작용과 다섯째, 집중력을 통한 상호소통과 메타인지학습의 창의적인 결과를 창의성이론의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였다[18].

창의성이론의 핵심요소로 결국 무용수 자신은 체험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신체움직임의 창의성은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일차적으로 무용수의 인지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인지과정이란 직접적으로 사건을 떨어져 고찰하고 그 사건을 제기할 수 있는 의미의 사고과정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사고과정에 대한 지식, 조절 또는 자기통제, 신념과 직관으로 자신의 인지활동을 통제하고 평가함을 정의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19].

지금까지 살펴본 신체움직임의 창의성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용수의 자각과 표현능력의 활용단계이다. 신체의 창의적 움직임을 위한 신체의 움직임 디자인은 무용수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움직임의 자각을 활용한 상상과 표현능력이며, 때문에 창의성 발달의 핵심요소는 무용수 스스로의 자기인식(self-awareness) 움직임의 발견(movement discovery), 움직임활용(use movement)이라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는 무용수의 내적과정을 통한 움직임의 창조적 표현으로 심리적 경험과 감각의 재발견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며, 따라서 신체움직임의 창의성은 상호작용에 의한 '제3의 힘'과 '흐름의 유연성'으로 신체움직임의 무한성을 의미한다.

2. 신체움직임의 창의성 요인

앞서 창의성이론에서 살펴본 바, 신체움직임의 창의성은 움직임 인식의 자각과 신체움직임 변화의 무한성을 전제로 움직임의 자각을 활용한 상상과 표현능력이며, 핵심요인은 첫째, 무용수 스스로의 자기인식과 둘째, 움직임의 발견 셋째, 움직임의 활용과 표현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세 가지의 창의성요인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기인식요인에는 무용수 스스로의 인지적 사고작용(acquaintance thought process)과 수용능력으로 문제인식과 문제발견이라는 확산적 사고에 기인한다. 자기인식요인에는 무용수의 신체인식에 대한 지각 능력과 자율적 한계를 뛰어넘는 능동적인 사고능력에 의한 상상력의 적극적인 몰입이 요구되며, 자기발견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변화된다. 또한 내적인 감각과 정신작용에 의한 자율적인 감정과 이미지의 역동적인 탐구능력이 변화요인으로 작용한다.

두 번째, 움직임의 발견요인으로 신체인식과 창의적 사고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순발력으로 움직임의 감수 능력과 표현의 확대로 나타난다. 이는 문제발견의 중요한 요인으로 변용의 확대와 무한한 창조적인 표현으로 구분된다. 신체움직임의 창의적인 표현은 상상력을 통한 심미적 경험과 감정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용과 무한창조의 표현으로 나타나며, 시간과 공간인지에 기여하는 표현능력을 포함한다. 특히 상상력을 활용한 미적체험과 몰입을 통한 최상수행의 창의적 표현은 신체 지각과 지적활동(intellectual mental activities)의 표현으로 자기표현의 탐구와 활용능력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세 번째, 움직임의 활용과 표현은 신체지각과 움직임

표현능력의 극대화를 의미하며, 생산적 사고와 신체움직임의 양식화된 의사소통의 기술까지 포함한다. 다시 말해 문제인식과 발견을 통한 통합적 이해와 사고의 확대, 움직임의 주제인식을 통한 자기표현의 양식화, 매체로서 소통과 표현, 신체움직임 표현의 해석과 분석능력을 통한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와 함께 통합적 표현능력의 상호작용이 주된 요소이다.

이와 같이 신체움직임의 창의성 요인에 관한 세 가지 특성을 구분한 바, 무용수 스스로의 문제인식과 움직임의 발견 그리고 움직임의 적극적인 표현과 활용으로 설명되었다[그림 2].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신체움직임의 창의성 이론의 출발점은 무용수 자아의 내재적인 유기체(inner organism)로서의 영감(inspiration)과 자연적인 흐름에서 내적인 힘(inner effort)의 창조적인 작용과 자율적인 체험에 근거한다.

이 연구는 신체움직임의 창의성이론을 탐구하고 창의성 요인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의미관계를 규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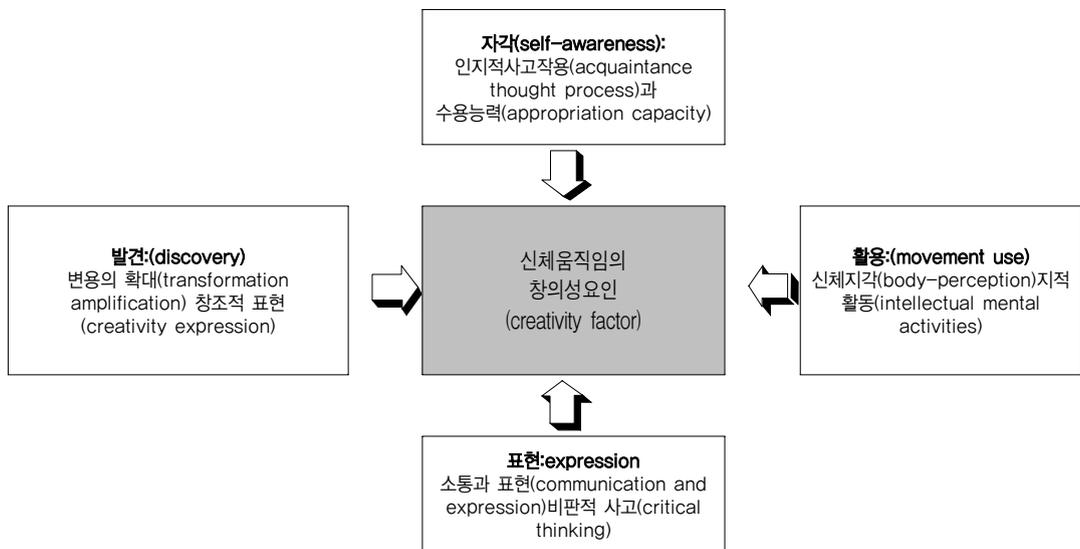


그림 2. 신체움직임의 창의성요인과 의미관계

위한 시도로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되었다.

첫째, 창의성은 문제인식과 해결방법으로 상상력을 통한 새로운 이미지의 사고능력과 표현을 말하며, 이는 켈포드의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에 기인한다. 신체 움직임의 창의적 사고는 움직임 변화의 무한성을 전제로 자각을 활용한 상상과 표현능력이다. 자기지각과 자아개념을 통한 새로운 이미지의 활용은 문제인식과 해결기능에 대한 창의적인 향상을 가져온다.

둘째, 신체지각을 통한 움직임의 지각능력은 창의적 움직임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무용수의 내적언어의 중심요소인 내적움직임의 요인들에 의해 표현된다. 이는 체험과 발견, 충동과 반응이라는 통합적 사고능력에서 비롯되며 리듬과 템포에 의한 시간활용과 공간지각능력에 크게 영향을 준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은 자신 스스로의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표현에서 순발력의 향상으로 발전하며, 움직임의 범위와 구성에도 다양한 변화를 추구한다.

셋째, 결국 무용에서 신체움직임의 창의성은 적극적인 사고와 움직임표현의 새로운 발견으로 문제인식과 해결, 집중력을 통한 표현력의 극대화, 긍정적인 사고의 확대, 신체지각능력, 자신감, 자기발견 등에서 폭넓은 변화와 경험에 의해 향상된다[20].

2. 결론

신체움직임의 창의성은 자기인식의 새로운 발견(new-discovery)과 독창적 움직임의 새로운 원리를 전제로 창의적인 움직임의 개별화(individualism) 즉, 움직임의 개별적인 창조와 창의성의 실천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J. Martin은 현대 춤의 창의성인식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첫째, 신체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움직임(movement), 둘째, 무용수와 관객사이에 존재하는 소통관계로서 신체적·정서적인 전이매체(meta-kinesis), 셋째, 움직임과 작품표현 요소로서의 역동성(dynamism), 넷째, 위 세 가지의 요소들 자체가 또 하나의 새로운 원리를 창조함을 전제로 창의적인 작용이 핵심이다. 이러한 특성들이 곧, 신체움직임의 창의성에 따른 개별적인 특성으로 즉, 움직임의 개별화(individualism)에 의한 창의성을 지향하는 독자성과 신

체움직임의 새로운 원리이며, 나아가 또 다른 하나의 완벽한 논리적 형식을 창조하는 것으로 무용교육과 창작의 창의성을 주장하였다[21]. 이렇듯 신체움직임의 창의성은 독창적인 개별화와 발현과정이며, 신체와 정신 그리고 신체와 정서의 경험에서 비롯됨을 의미한다. 특히 창의성이론의 핵심인 상상력에 의한 자기지각과 움직임의 발견 그리고 움직임의 활용과 표현은 내적과정을 통한 심리적 경험과 감각의 재발견에 의해 표현되며, 상호작용에 의한 흐름의 유연성에 영향을 준다.

지금까지 신체움직임의 창의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분석과 구성요인들을 근거로 이론적 논거를 종합하여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움직임의 창의성은 무용수들의 상상력과 몰입상태(flow states)의 최상수행(peak performance)에 의해 나타나며, 신체와 정신의 자율성을 통합하고 창의적 사고와 움직임의 자율적 성취를 향상시킨다.

둘째, 인지적 특성에서 신체움직임의 창의성은 움직임의 내면세계를 구체적인 현실세계로 가져오면서 자기표현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며, 모든 과정의 경험과 체험기회를 통해 분석, 종합, 평가 그리고 '문제발견(problem-finding)'을 포함한 고차원의 창의적 사고기술을 훈련시키고 발달시킨다.

셋째, 위와 같은 요인들을 토대로 신체움직임의 창의성은 무용수들의 자아세계의 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반성(reflection)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창의적 자율성에 근거하여 자유롭고 새로운 움직임의 언어를 창출한다.

이상과 같이 신체움직임의 창의성이론은 내적인식의 활용방법과 비판적 사고능력이 동시에 수행될 수 있어야 창의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며, 체험적 교육에 대한 다차원적인 방법으로 그 이론적인 개념과 활용범위의 가치를 넓힐 수 있다[22]. 결론적으로 창의성 이론의 핵심인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와의 관계는 무용수들에게 스스로의 인지와 움직임의 체현과정으로 주요인은 움직임의 발견과 활용능력 그리고 움직임의 표현으로 나타났고, 이들 관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과 소통에 의해 움직임의 창의성은 발전된다.

참 고 문 헌

[1] 안주경, “무용창작에 적용된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중성 표현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pp.146-155, 2012.

[2] R G. 콜링우드, 이일철 역, *예술철학개론*, 정음사, pp.125-130, 1978.

[3] J. P. Guilford, “Structure of intellect,” *Psychological Bulletin*, Vol.53, pp.267-293, 1956.

[4] 고주연, *창작무용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5] 권영훈, *창작무용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 및 신체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6] 권정숙, *움직임의 4가지 요소를 통한 무용학습이 창의성 개발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7] 한혜리, *무용에서 감성과 창의성의 개념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9권 2호, pp.1-12.

[8] 최효진, *유아의 창의성 개발을 위한 무용 학습 프로그램 시안*,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9] 오레지나, “무용창의성의 요인분석”, 한국무용교육학회, 제17권, 제1호, pp.205-222, 2006.

[10] 박중길, *K-12무용교육과정 개념 틀 개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11] 강혜련, *창의적 사고와 신체지각과의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12] 안병순, “즉흥무용교육의 창의성이론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47권, 제6호, pp.579-591, 2008.

[13] 브루스터 기세린, 이상섭 역, *예술창조의 과정*, 연세대학교 출판부, pp.108-110, 1980.

[14] 질베르 뒤랑, 진형준 역, *상징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pp.71-90, 1988.

[15] 잔느 베르니스, 이재희 역, *상상력*, 탐구당, pp.8-10, 1988.

[16] 한혜리, “무용에서 감성과 창의성의 개념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9권, 제2호, pp.1-12, 2008.

[17] 안병순, *라반의 움직임교육을 통한 즉흥무용프로그램이 대학무용수의 창의성에 미치는 참여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18] R. W. Burns and G. D. Brooks, “Processes, problem solving and curriculum reform,” *Educational Studies*, pp.8-10, 1970.

[19] 황혜선, *메타인지 학습방법을 적용한 접촉즉흥무용교육과정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20] 안병순, “즉흥무용의 수행과정에 관한 질적 접근”, 한국체육학회지, 제44권, 제5호, pp.769-778, 2005.

[21] John Martim 저, 김태원 역, *현대 춤의 인식*, 현대미술사, pp.11-67, 1983.

[22] 안병순, “즉흥무용교육의 창의성이론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47권, 제6호, pp.579-591, 2008.

저 자 소 개

안 병 순(Byoung-Soon Ahn)

정희원



- 1987년 2월 : 세종대학교 무용학과(무용학사)
- 1989년 8월 : 세종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 석사)
- 2005년 8월 : 단국대학교 무용학과(무용학 박사)
- 2000년 9월 ~ 현재 : 순천향대학교 연극무용학과 교수 <관심분야> : 무용교육, 무용창작